

# 서든어택, 스페셜포스 정조준!

직장인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활기찬 8월 한 달이었다. 이번 조사기간(2006년 7월 28일 ~ 2006년 8월 27일)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게임 사용량이 약 11%정도 증가했다.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데는 방학과 휴가시즌이 들어있었던 데다가 광복절을 끼고 연휴도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장르별 활약상을 살펴보면 <스페셜포스>, 그 뒤를 바짝 쫓는 <서든어택> 등으로 대변되는 FPS가 국민장르라고 할 만큼 변함없이 큰 인기를 끌었다. RPG 장르에서는 <리니지>, <리니지2> 그리고 <월드 오브 워크래프트>가 치열하게 순위 바꾸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었다.

자료: 게임트릭스

## [ 게임 장르별 기상도 ]

RPG	FPS
 <p>&lt;리니지&gt;, &lt;월드 오브 워크래프트&gt; 등 상위권 RPG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, &lt;썬 온라인&gt;, &lt;던전앤파이터&gt;, &lt;로한&gt; 등 대다수의 RPG들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.</p>	 <p>&lt;서든어택&gt;이 3계단 상승하며 부동의 1위 &lt;스페셜 포스&gt;를 바짝 추격하고 나섰다. 이 두 게임으로 당분간 FPS의 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.</p>
아케이드	스포츠
 <p>학생들의 방학 시즌 영향 때문인지 &lt;오디션&gt;, &lt;알투비트&gt;, &lt;갯애프드&gt; 등의 선전이 이어졌다.</p>	 <p>승승장구하던 네오위즈의 &lt;피파온라인&gt;이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순위 하락의 쓴맛을 보고 있다. 게다가 그동안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오던 &lt;카트라이더&gt;도 상승 여력이 꺾인 모습을 보였다.</p>

최근 게임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몇 개 월째 승승장구하고 있는 <서든어택>을 꼽을 수 있다.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되고 수많은 프로게이머를 만들어 낸 <스타크래프트>를 밀어내고 당당히 월간 순위 2위에 오르면서 FPS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는 것. 조사기간 내 총점유율 8.38%를 기록하여 전 기간 대비 2.04% 상승, 3계단을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. 그 동안 간간히 주말 사용량 2위를 차지한 적은 있

지만 월간 순위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순위 상으로는 1위 <스페셜포스>를 바짝 뒤쫓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장점유율로 봤을 때 3.70%라는 큰 차이가 있다. 피망과의 결별수순을 밟고 있는 <스페셜포스>가 지속적인 대회개최, 신규 업데이트, 커뮤니티 지원 등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<서든어택>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### RPG장르의 새로운 세력, R2

<R2>가 지난 8월 1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. 기대작 RPG '빅3' 인 <그라나도 에스파다>, <제라> 그리고 <썬 온라인>이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RPG 장르 게임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. 8월 초 오픈 이래 현재까지 성적으로 보면 종합 1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의 성적표를 보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<썬 온

라인)을 누르고 있다. <R2>는 타게임에서 보여지는 소수의 성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매주 주말에 동시 스포츠 공성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물론 아직 오픈한 지 1개월도 채 안된 게임으로서 초기 관심도가 높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유명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보면 거래량에서 벌써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출발이 순조로운 편이다. <제라>와 <그나도 에스파다>가 3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<썬 온라인>과 <R2>의 기세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### 톱10 재진입을 향하여, 프리스타일

스포츠 장르 게임으로서 처음 톱10에 진입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<프리스타일>. 그러나 파란과 조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작사 측에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서버 불안정, 매끄럽지 못했던 계정 이전 작업 등으로 유저들의 원성을 샀다. 게다가 야심차게 준비한 5:5 풀코트 게임 방식에 유저들이 재미를 못 느끼고 3:3 방식으로 되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 결과 매마침 월드컵 열풍을 등에 업은 <피파온라인>이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감으로써 10위권 안에서 밀려나는 쓴맛을 보게 되었다.

### 파이 크기는 변치 않는다?

게임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11%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<스페셜포스>와 <서든어택>, <프리스타일>과 <피파온라인>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 쪽이 성장하면 다른 한 쪽은 위축되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어느 한 게임에 유저가 몰리면 그 유저는 게임을 하지 않

8월 온라인게임 순위

조사기간: 2006년 7월 28일~8월 27일

순위	장르	게임 타이틀	점유율 (%)	평균 총 사용시간 (시간)	PC방당 사용시간 (분)	평균 체류시간 (분)	
1	-	FPS	스페셜포스	12.08%	693,578	2,203	49
2	▲3	FPS	서든어택	8.38%	480,778	1,488	45
3	▼1	RTS	스타크래프트	7.51%	431,061	1,388	52
4	-	RPG	리니지2	6.89%	395,609	1,349	113
5	▲1	RPG	리니지	6.27%	359,791	1,214	89
6	▲1	RPG	월드 오브 워크래프트	6.26%	359,089	1,320	117
7	▼4	스포츠	피파온라인	6.08%	348,792	1,062	42
8	-	RTS	워크래프트3	4.59%	263,568	1,031	68
9	-	레이싱	카트라이더	4.03%	231,392	706	40
10	▲1	아케이드	오디션	3.08%	176,900	627	47
11	▲3	스포츠	프리스타일	2.19%	125,564	584	45
12	▼2	RPG	썬 온라인	2.17%	124,275	566	105
13	▼1	RPG	던전앤애티어	2.14%	122,988	487	54
14	▲1	RPG	메이플 스토리	2.00%	114,608	443	44
15	▼2	RPG	로한	1.80%	103,519	635	105
16	-	RPG	R2	1.44%	82,852	534	87
17	▼1	고스톱	한게임 신맛고	1.37%	78,430	301	21
18	▼1	RPG	뮤	1.24%	70,909	423	63
19	▼1	FPS	워록	1.14%	65,709	285	59
20	▲1	아케이드	알투비트	0.93%	260	27	
21	▼2	RPG	열혈강호	0.91%	52,291	397	73
22	▼2	RPG	데카론	0.87%	49,854	354	100
23	▲1	FPS	건즈 온라인	0.63%	36,174	176	27
24	▲4	아케이드	켓애프드	0.56%	32,096	181	30
25	▼2	RPG	마비노기	0.48%	27,601	202	71
26	▼4	RPG	영웅 온라인	0.48%	27,591	335	84
27	-	아케이드	넷마블 테트리스 플러스	0.48%	27,280	116	30
28	▼3	고스톱	피망 뉴맛고	0.43%	24,916	131	22
29	▼3	스포츠	마구마구	0.43%	24,691	180	50
30	▲7	RPG	십이지천	0.40%	22,766	321	106

신뢰도 95% 오차율 4.71%

있던 신규 유저가 아닌 타 게임을 즐기던 유저가 이탈하여 그 게임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의미다. 마치 이동통신사들 간의 파이 싸움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.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던 RPG 장르 게임들의 성장 둔화, 여전히 유저와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스포츠 장르, 비슷비슷한 진행 방식의 FPS 장르까지 어느 하나 성장일

로에 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게임 시장의 현실이다.

레드 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게임 시장에도 분명 블루오션은 존재할 것이다. 그러기 위해선 비슷비슷하다 못해 획일적인 그래픽, 진행 방식 등에서 탈피해야 게임을 즐기지 않는 유저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. 🎯